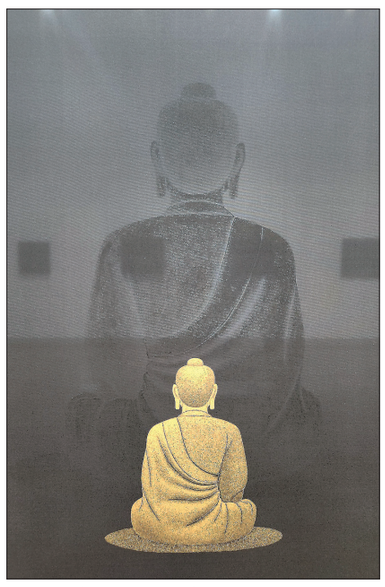
금니로 새긴 부처님 뒷모습, 내면의 빛 품다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 '스스로 빛이 되어 II'가 대구 토포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해기 작가 개인전, 11월 13~30일
대구 토포하우스 제 1, 2전시실서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20점 선봬
부처님 뒷모습 통해 각자의 해석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금니선화로 현대 불교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이해기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이해기 작가는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토포하우스 제1, 2전시실에서 '스스로 빛이 되어 II'를 주제로 전시를 이어간다.

이해기 작가는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시대 사경 기법인 금니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불교화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업을 펼쳐왔다. 99.9% 순금으로 부처님의 존귀함을 표현한 작품들은 전통 불교화의 기법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검은 비단과 감지 위에 금니로 세밀하게 그린 작품들은 금빛 선을 따라 시각적인 섬세함을 자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전시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1997년 초기작부터 2024년 최신작까지 총 20여 점을 선보인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담은 뒷모습을 비롯해 화엄경에 나오는 선재동자와 관음보살을 그린 2002년 작 '수월관음도'와 금니세필 작업 초기 완성작인 1997년의 '지장시왕도'가 포함됐다. 특히 '지장시왕도'는 컬렉터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중앙 하단 화기 부분이 비워져 있어 특별하다.

이해기 작가는 매일 참선으로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몰두하며 작품에 정성을 쏟는다. 그의 작품들이 금빛의 섬세한 선을 통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유다.

이해기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작품의 의미는 관객의 해석을 통해 완성된다"며 "작품을 마주한 관람객들이 부처님의 뒷모습을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6회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을 수상한 진갑생 씨의 '삼광사 천태종 연등행사'.

천태사진공모전 금상에 진갑생 作 선정

410점 출품…김광주 씨 은상 수상
12월 14~24일, 한국갤러리 전시

제6회 천태사진공모전에서 진갑생 씨의 작품 '삼광사 천태종 연등행사'가 금상에 선정됐다.

천태종 문화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41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에는 이병윤 심사위원장을 비롯해 이성록 한사협 감독관, 김대중, 김문호, 김운식 씨 등 국내 사진작가들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은상에는 김광주 씨의 '구인사 대조사전 관람'이 선정됐으며, 동상에는 이형록 씨의 '구인사 영산재 바라춤' 등 세 작품이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 은상 300만 원, 동상 각 100만원, 가작 수상자 10명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의 자연 △전통문화 △미풍양속을 비롯해 소백산국립공원 및 단양지역, 전국 천태종 사찰을 담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상작들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전시되며 전시 기간 중 시상식이 열릴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불교와 한의학의 만남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
11월 23일, 웹엑스 비대면 개최

한국불교상담학회는 11월 23일 오후 1시 '불교와 한의학'을 주제로 제22회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적 지혜와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는 '호흡의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배효상, 동국대)을 주제로 호흡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불교의 지혜를 통한 한의사의 화병 치료'(권찬영, 동의대)를 통해 지혜가 화병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불교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의학 의안'(김근우, 동국대)을 통해 불교적 마음챙김과 한의학적 접근이 심리적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논평에는 불림 스님(동학사 승가대학), 현도 스님(동국대), 윤종갑(동아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Webex으로 진행되며 미팅 번호(2553 617 7172)와 비밀번호(123456)를 입력하면 된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입장할 수 있다. 정현선 기자


'환지본처' 지광국사탑, 제 모습 찾다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고승 지광국사 해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석탑으로 화려한 조각과 장식으로 고려 석조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일제강점기인 1911년 처음 불법 반출돼 유랑의 시간을 보냈고,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엔 포탄을 맞아 1만 2000여 조각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었다. 비운의 문화유산 지광국사탑이 113년만에 원주 법천사지에서 제 모습으로 복원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오전 11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에서 복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제 모습을 찾은 지광국사탑을 친견하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사진제공=원주시

'서산 보원사지 석탑' 국보 승격 추진 본격화

11월 8일, 서산문화복지센터서
국보 승격 위한 학계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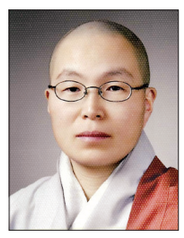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가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서산시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는 11월 8일 서산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부조상의 특징(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양식과 조성시기(엄기표 단국대 교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공예사적 고찰(신대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보존상태와 석재의 산지해석(이찬희 국립공주대 교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제7회 퇴옹학술상, 법장 스님·신희정 강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주최
11월 30일 시상식, 고심정사서
성철 스님 사상 주제 학술대회도


법장 스님


신희정 강사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주최하는 제7회 퇴옹학술상에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과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가 각각 교리와 응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리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법장 스님의 논문은 티베트어 원전 '연기의 총의'를 분석해 자립논증파가 바라보는 십이연기의 독자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티베트 승가 대학 교재에 담긴 자립논증파의 십이연기 해석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 논문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응용 부문에 선정된 신희정 강사의 논문은 불교의 마음체계를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특히 불교와 과학, 도덕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의 도덕 교육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퇴옹학술상 시상식은 11월 30일 부산 중앙동 고심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은 최연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점숙 퇴옹학술상 선정위원장이 심사과정과 배경을 보고할 예정이다.

시상식 후에는 '성철 스님의 불교사상과 선'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정현선 기자

